

4차 산업혁명과 기독교대학

김지원(백석대학교 보건학부 교수)

I. 서론

최근 4차 산업혁명이 가져 올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논의들이 활성화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I), 3D 프린팅, 클라우드(Cloud) 등이 가져올 미래 사회의 변화를 말한다. 이러한 변화는 공학이나 기술 분야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4차 산업혁명은 경제와 산업의 세계에 머물러있지 않고 학문과 교육의 세계를 비롯하여 모든 영역을 깊이 파헤치고 있다(오인탁, 2017: 127).” 교육 분야에서도 초고속화(hyper-speed), 초지능화(hyper-intelligence), 초감성화(hyper-emotion), 초융합화(hyper-fusion), 초고령화(hyper-aging)라는 6가지 트렌드가 미래의 교육변화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김영식, 2018: 29).

4차 산업혁명이 인간에게 가져다 줄 장밋빛의 미래와 함께 두려움을 주는 문제는 인공지능, 인공로봇이 수천 년간 인간이 해오던 일들을 대체하게 된다는 것이다. 세계경제포럼(2016)은 미래의 직업에 대한 보고서 서문에서 지금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어린이의 65%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¹⁾ 이 외에도 현재의 직업 중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거나 인공지능과 인공로봇이 인간이 하던 일을 대신하게 되어 새로운 직업이 선보일 것이라 예상된다.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통해서도 인간의 직업에 변화가 있었지만 변화가 완만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회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았다. 이에 반해 4차 산업혁명의 변화는 기하급수적인 변화일 것이라 예상하고 있으며, 그만큼 사회에 큰 충격과 부담을 줄 수 있다. 1차, 2차, 3차 산업혁명으로 인간의 삶이 풍요로워졌다. 하지만 풍요의 이면에는 환경파괴, 빈부격차의 심화, 인간소외의 현상 등의 폐해가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는 빈부격차가 더욱 악화되고,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간의 장기를 부품처럼 교체하고, 일부 영역에서는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로봇이 개발되어 인간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는 과거의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변화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변화가 예상된다. 어느덧 인간의 삶 속에 깊숙이 다가온 4차 산업혁명의 변화 속에서 인류는 어떻게 대처하여 나갈 수 있을까? 더욱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살아야 할 것인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떠한 신기술이 펼쳐질 것인지를 예상하고 이러한 변화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방안 및 대학들의 대응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오인탁, 2017; 성태제, 2017; 조상식, 2016). 그러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다양한 논의 속에서 기독교대학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어떻게 대응하고 생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결과는 없다. 정보기술혁명이라는 3차 산업혁명 속에서도 한국의 기독교대학은 기독교 정체성을 유지하며 대학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의 변화가 본격적인 패도에 진입한다면 기독교대학은 과연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따른 교육환경의 변화와 생존하기 위한 대학들의 변화에 대한 자

1) World Economic Forum(2016 January) Global Challenge Insight Report: The Future of Jobs (3p)

료를 검토하고 기독교대학이 어떻게 이러한 변화에 대처해야하는지 모색하고자 한다.

II. 4차 산업혁명과 대학

1.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교육환경의 변화

4차 산업혁명은 과학기술과 산업현장을 넘어 대학의 교육환경에도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미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교육의 확대는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교수-학생의 교육 모델을 깨뜨리며 대학의 생존을 위협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과학기술의 기하급수적인 발전과 학문 간 융합은 전통적인 교수자 중심의 교육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의 변화를 이끌고 있으며, 배움의 시기를 뜻하는 ‘학령기’ 용어는 사라지고 평생교육의 시대가 오고 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대학 교육환경의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고자 한다.

(1) 디지털 교육 플랫폼의 확산

미국 고등교육 정책 전문가인 케빈 캐리는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을 둔 ‘어디서나 닿을 수 있는 대학(University of Everywhere)’이 미래의 대학임을 주장하면서, 이러한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 대학은 사라질 것이라 경고한다(Carey, 2015: 15-16). 캐리의 주장처럼, MOOC, edX, FutureLearn, Coursera 등 다양한 디지털 교육 플랫폼들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가 2015년 27개 강좌를 처음 선보인 이후 2017년 324강좌를 제공하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왔고, 2018년에는 500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²⁾

디지털 교육 플랫폼의 확산은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편리성과 함께 적절한 교육 기회를 제공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인터넷만 있으면 교육의 기회가 제공된다는 면에서 개인이나 국가의 경제적 상황에 따른 교육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실제로 전 세계 어디에서나 전문지식을 얻기 원한다면 미국 명문대학의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원하는 정보를 사이버 공간에서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더 이상 비싼 등록금을 지불하지 않고도 대학의 전문지식을 얻을 수 있는 사회로 되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면과 함께 전문지식과 기술 습득 채널이 다양화되면서 대학교육의 필요성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 예상한다(조현국, 2017: 55). 대학교육 필요성의 감소는 결국 거대 자본으로 양질의 디지털 교육 자료를 생산하고 선점하는 대학은 살아 남고, 이에 뒤처지는 후발 대학들은 경쟁 속에서 서서히 사라지는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이는 다양한 지역과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대학과 이들 대학을 통해 이루어지는 학문의 다양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학문의 다양성 훼손과 함께 일부 명문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플랫폼의 독점화는 지식의 개방과 공유라는 취지를 사라지게 하고, 수익형 사업의 하나로 변질되어 대학의 사회적 역할이나 책임은 사라질 것이다(이은정, 2017: 152-153).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디지털 교육 플랫폼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인성교육의 강화

“무엇보다도 제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변화이자 위기는 인간성 상실에 있다. 과거 20세기 초반 산업혁명과 세계대전 등으로 인해 인간 소외가 문제가 되었다면 오늘날은 아예 인간 존재 자체가 상실될 위기에 처해 있다(지현아, 2017:42).” 따라서 그 어느 때 보다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그 동안 대학에서의 인성교육은 교양수업과 비교과과정 등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학생들이 사회에 나아가 활동하게 될 전문영역에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전공학문과 관련된 윤리교육과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기독교대

2)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대학 담장 허문다’ 대학신문(2018.4.9)

학은 각 학문영역에서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전공과목 또는 교양과목을 개설하고 교육하여 기독교 지성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김지원, 2015: 41).

“인간성 상실의 위기와 인간-기계 경쟁의 심화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시대의 인간성에 대한 고민, 윤리, 배려 등 인문학적 고민과 새로운 형태의 인성 교육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조현국, 2017: 78).” 그렇다면 미래사회의 인간이 가져야 할 덕목과 인성은 무엇이며 어디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러한 인성에 대한 고민은 결국 인간의 본질에 대한 질문으로 귀결되고 결국 기독교인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진화론적 입장에서 인성의 근거를 찾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답은 기독교 인성교육에 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사실이며 진실이다. 인본주의 인성교육이 일반은총의 영향으로 유사성을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성교육은 잘못된 것일 수밖에 없다. “인본주의 인성교육과 기독교 인성교육은 그 근본에서 차이가 있다. 그 차이점은 인간 자신의 힘으로 이루고자 하는 인성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의해 인성을 추구하는 점에서 이다(이원일, 2017: 3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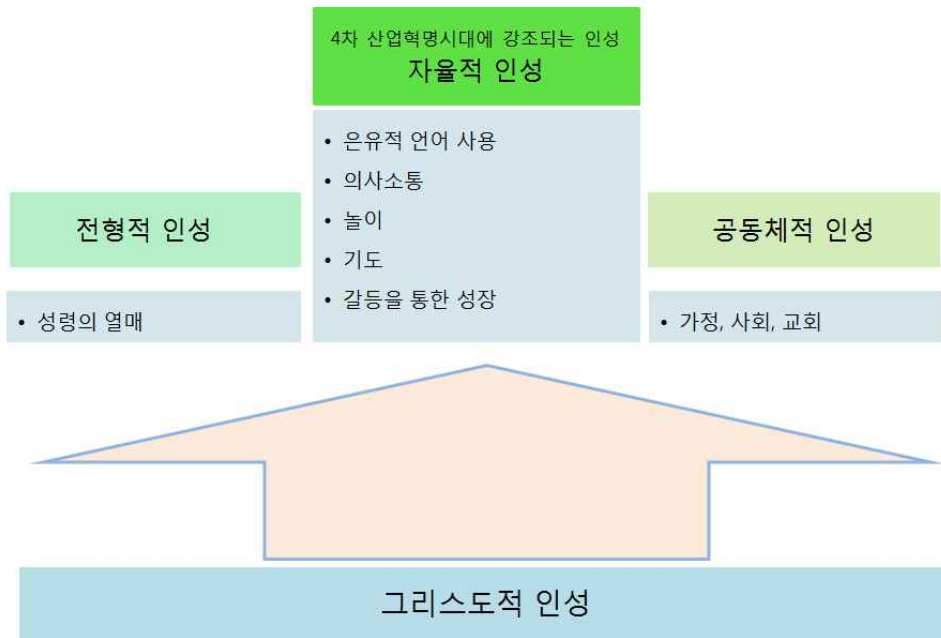
모든 대학들이 학생들의 인성개발을 위한 교과목을 개발하고, 국내외 봉사활동, 상담, 멘토링, 학생 기숙사를 통한 비교과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기독교대학들도 일반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인성개발을 위한 교과목을 운영하고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기독교대학의 인성개발은 학생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스스로 변화를 체험하고 지속적으로 성화의 길을 가도록 해야 한다.

칼뱅주의자인 호레스 부쉬넬(Horace Bushnell)의 기독교 인성교육의 사상을 연구하여, 기독교 인성을 그리스도적 인성, 전형적 인성, 자율적 인성, 공동체적 인성으로 설명하고 있다(이원일, 2017: 361-371). 이원일의 연구(2017)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쉬넬의 기독교인성교육을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성교육과 접목하여 설명하였다(그림 1). ‘그리스도적 인성’은 바로 인성교육의 밑바탕이 되는 기초이자 인성교육의 목적이다. 기독교대학의 인성교육은 성령의 열매에 해당하는 온유함, 인내, 사랑 등의 ‘전형적인 인성’을 교육해야 하며, 가정, 사회, 교회가 함께 ‘공동체적 인성’을 개발하도록 협력해야 한다. 특히, ‘자율적 인성’은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인재상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성경에서 사용되는 ‘은유적 언어’는 상상력을 촉진하며 이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와 연결되고, 의사소통, 놀이의 중요성을 언급한 내용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인성과 일치한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는 기독교인성 교육에 있어 ‘자율적 인성’을 집중하여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3) 평생교육

과거의 교육은 초등학교에서 대학생까지는 교육을 받고, 취업 후에는 일을 하고, 정년 후에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것이 전형적인 삶의 패러다임이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평생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교육, 일, 여가가 같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최승복, 2017: 23). 미래사회는 교육, 일, 여가의 구분 없이 모든 세대에서 교육과 놀이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직장에서도 일하면서 배우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다.

평생교육시대가 열린다는 것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들에게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하여 줄 수 있다. “평생 교육을 위한 범사회적 노력은 전 인생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면서 학교라는 제도권 교육 체제를 넘어서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그리고 이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학교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는 각급 학교들이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장으로서, 혹은 동일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의사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면 학교는 새롭게 존립을 위한 역할을 부여받게 될 것이다(김웅기, 2018: 71).” 그렇다면 평생교육시대에 대학의 새로운 역할은 무엇일까? 바로 개인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에 있다. 현재의 대학이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었다면, 평생교육 시대의 대학은 개인별 최적화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교육 서비스는 단지 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그림 1)부쉬넬의 기독교인성교육(이원일, 2017) 중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자율적 인성을 도식화.

정신적, 심리적, 영적인 필요성을 채워주는 전인적인 교육이 될 것이고, 이러한 면에서 기독교대학의 역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대학은 더욱 더 ‘종교 조직’처럼 되어야만 융성할 수 있다. 대학은 학습자들이 평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아름다운 현실 및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학습자들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학습을 기반으로 인간적인 공동체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Carey, 2015: 325).” 대학이 교회(종교 조직)처럼 되어야만 융성할 수 있다는 말은 기독교대학에 좋은 통찰을 준다. 기독교대학이 다가오는 평생교육시대를 잘 준비한다면 기독교 문화를 창출하는 문화의 장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될 것이다. 기독교대학에서의 교육과 신앙은 4년간의 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제 평생 동안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학습하는 시대가 되었다. 기독교대학은 그런 의미에서 전인적으로 개인에게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작은 학습공동체를 이루고 소통하는 평생학습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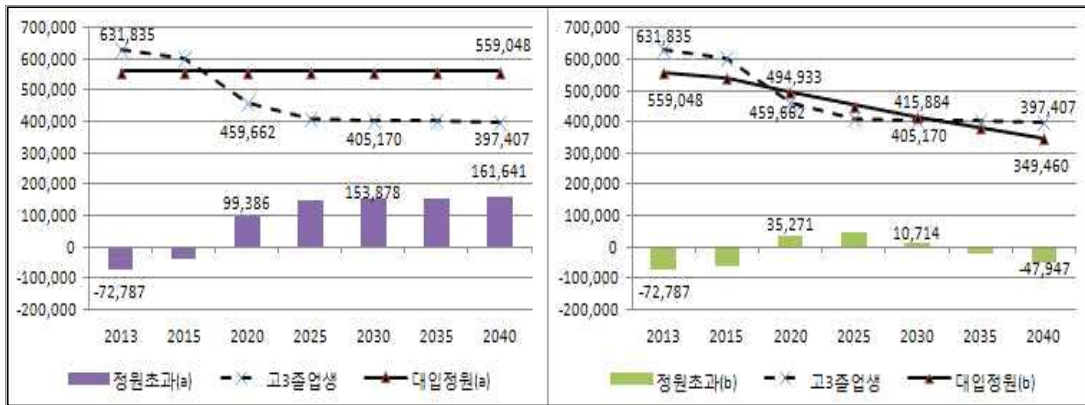
2. 국내 대학의 환경

1) 입학 자원의 감소

국내의 대학들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로 대학입학 자원이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0년에는 대학입학정원의 수가 고교졸업생 수의 3.5만 명, 2025년에는 4.4만 명, 2030년에는 1.1만 명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반상진 등, 2013).

2) 교육부 주도의 대학구조개혁

대학구조개혁은 원인은 입학자원의 감소와 함께 국민의 세금이 부실한 대학의 재정지원으로 이어져서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의 본질을 잊은 채 돈벌이에 급급한 일부 대학들과 상식 이하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대학들을 정리하는 것이 대학구조개혁의 목적인 것이다. 그러나 대학구조개혁과 함께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대학들이 스스로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대처하면서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2013년 이후 대입정원동결(A)

대입정원 평균 감축률 반영(B)

[그림 2] 대학정원 초과 학생 수 예(반상진 등, 2013년의 그림 인용)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렇지만 대학의 여건을 고려하지 못한 교육부 주도의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대학의 발전을 막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와 공감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일을 실패하도록 이끌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게 된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특징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주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성태제, 2017: 17). 그러나 각종 정부주도로 진행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과 대학구조개혁평가 등은 학문의 다양성과 이를 근거로 한 창의성 개발과는 거리가 멀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교육생태계의 역량을 강화하고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긍정적 기제가 되어야 한다(반상진, 2014: 이기중 논문의 950p).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비정년 교수를 양산하고,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때문에 교수의 강의시수만 높이고,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해 수학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외국인 학생이 동원되는 것이 현실이다(이기중, 2015: 950). 획일적인 잣대로 대학을 평가하는 것이 도리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국내의 기독교대학들은 이러한 여건 속에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대부분의 기독교대학들이 일반대학 가운데 ‘하나의 대학’으로 전략해 가고 있다(조용훈, 2009: 6).” 이러한 국내 대학의 환경 속에서 대학은 미래를 위한 준비보다는 바로 눈앞의 생존을 위해 교육부의 평가점수를 높이는데 귀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학이 가진 본래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외적 요구를 맞추어가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현재 대학교육의 숙제이다(조현국, 2017: 56). 현재의 문제를 푸는 방법은 대학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미래교육을 위해 대학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획기적인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III.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독교대학의 대응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세상적인 접근은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 이익을 얻고 살아남을 방법을 찾는 것이다. 그러나 과학 기술이 효율성과 경제적 이익에만 머물지 말고 윤리적, 문화적 차원에서 과학 기술을 왜 개발해야 하는지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합의할 필요가 있다(윤승태, 2018: 604). 기독교인이 4차 산업혁명이 가지고 올 변화에 대응함과 동시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세계관의 토대 위에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세계관과 기독교 지성으로 무장된 인재들을 양성하는 기독교대학의 역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4차 산업혁명에 기독교대학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를 논하고자 한다.

1. 4차 산업혁명 기독교대학의 위기인가 기회인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기술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 여러 기업들과 정부는 미래를 이끌어갈 기술력을 선점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기독교대학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인류를 위한 기술의 발전이 인간 파괴의 길로 가지 않도록 조절하는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조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부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이어야 하고, 기독교세계관과 기독교지성을 가지고 자신의 학문분야 또는 융복합 분야를 바라볼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이러한 인재를 키우도록 부르심을 받은 곳이 바로 기독교대학이다.

근대과학의 발전에 기독교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역사학자들은 말한다. 두려움의 대상이며 숭배의 대상이었던 자연을 기독교가 하나님의 피조세계 안에 둬으로써 관찰, 연구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종교개혁은 근대과학의 탄생에 최소한 작은 밑거름이 되었고, 종교개혁의 핵심사상은 과학 활동을 확대시키며 다양성을 증가시켰다(우종학, 2017: 39). “종교개혁이 이런 발전의 중요한 단초를 제공했다면 그 개혁의 전통을 이어받은 오늘의 개신교인들은 그 발전의 결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한다(손봉호, 2017: 193).” 이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기독교인들이 보다 큰 책임감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요즘 기독교대학은 출산율 감소로 인한 대학입학 학생 수의 감소, 각종 대학평가로 인한 생존의 위협과 피로의 누적, 기독교대학의 정체성 혼란, 기독교 신앙을 가진 학생 수의 감소 등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 기독교인이 처한 수많은 어려움을 보아왔고, 어떻게 행동하였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승리하였는지 알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위기를 극복하여 기독교대학이 단지 생존을 넘어 탁월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이다. 기독교대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온전한 기독교대학이 되려고 모든 구성원이 협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기독교대학은 자신의 신앙적 성향을 이해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그 성향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 북미에서 태어나서 발전한 기독교 대학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 모델을 적용할 한국의 토양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심재승, 2004: 11-12).” 이를 위해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북미 등의 성공적인 기독교대학의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할 뿐 아니라, 한국의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로써 4차 산업혁명의 위기를 기독교대학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2. 기독교대학 미래를 위한 제언

2017년 새롭게 출발한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직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두고 범국가적인 역량을 모아 혁신 친화적인 창업국가를 만들고자 하고 있다.³⁾ 일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정부에 의해 과잉 포장된 점이 있음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지만 그렇다고 방관만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님은 분명하다. 기독교대학의 학자들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를 주의하여 지켜보면서 동시에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로 돌아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를 예상하고 나아갈 길을 제시하여야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기독교대학의 미래는 바로 이러한 역할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기독교인들의 모임이라는 면에서 기독교대학은 하나의 특수한 교회다. 일반 교회와 기독교대학은 복음을 전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대학은 일반 교회와는 다른 미션을 받은 교회이다. 일반 교회와 다른 사명은 바로 학문을 통해 하나님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학문의 세계는 그 어느 곳보다 타락했다. 가치중립적이라는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왜곡된 세계관의 토대에 서있는 것이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지성을 통해 학문의 왜곡됨을 회개하고 회복하여야 한다.

3) <https://www.4th-ir.go.kr/>

4차 산업혁명은 현재 학문의 왜곡된 현상을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많다. 현재 학문의 문제는 과학주의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주의는 과학을 통해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다. 과학주의는 생명공학을 통해 인간의 장기를 부품과 같이 교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가상현실의 공간에서 인간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힘들고 위험한 일들을 인공로봇이 담당하고, 인간은 편안히 즐기며 사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말한다. 과연 그곳은 인간의 힘으로 만든 천국이며 우리 인류가 가야할 종착지인가?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담론에서 기독교학자들이 그 중심부에 서야 한다. 지금 이대로 간다면 기독교가 차지하는 자리는 더욱 좁아질 것이고 지금 보다 더욱 주변으로 밀려난 기독교가 될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 대학들이 먼저 지혜를 모으고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학자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유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국내 기독교대학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1) 기독교대학의 설립 정신 회복

국내에 많은 기독교대학들이 설립되었지만 세속화의 길을 가고 있다. 그 이유는 기독교대학들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가운데 설립정신을 유지하고 계승하는 것에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성도의 삶에 있어 매일 매일의 삶은 영적전투이다. '우상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의 상황에서 성도들은 연약한 성도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길을 가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영적전투에서 패배하여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잘못을 범하기 쉽다. 이러한 때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복음과 함께 기독교세계관과 기독교지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기독교대학은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본을 보여야 한다.

한국의 교회와 기독교대학은 성도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 긍정적인 면은 한국교회와 기독교대학이 성경 말씀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도 비교적 성경말씀을 중요시하고 많은 설교를 통해 말씀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반하며 부정적인 면은 성경 말씀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 실제 삶의 현장에 적용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기독교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부족한 이유는 바로 기독교세계관과 기독교지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성경적 세계관인 기독교세계관은 성경을 알고 있다고 저절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세계관이 성경에서 나온 성경적 세계관이지만,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과 기독교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성경적세계관은 성경적 지식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가는 주변의 사람들의 영향과 가정, 교회, 학교, 사회에서의 체험을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는 유교적, 기복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도 성경을 머리로 알고 있지만,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는 것은 유교적, 기복주의적 세계관, 과학주의, 황금만능주의 세계관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러한 세상적 세계관에 물들어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한국의 교회와 기독교대학이 기독교세계관과 기독교지성을 갖춘 성도를 만들어가지 못한다면 한국의 교회와 기독교대학은 더욱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 교회와 기독교대학은 지난 과거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그 동안 한국 교회와 기독교대학은 많은 반성을 하였다. 하지만 잘못에 대한 깊은 성찰과 진정한 회개는 없었다. 잘못을 반성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진정한 회개인 돌이키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진정한 회개, 즉 진정한 돌이킴이다. 한국의 교회와 기독교대학이 잘못을 돌이켜 올바르게 바꾸려는 행동이 있을 때 한국의 기독교는 다시 한 번 부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기독교대학이 돌이켜야 할 사항들을 논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 기독교의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 이는 한국 기독교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세상적 세계관을 제

거하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성경이 제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적 지식은 단지 머리에 머문 채 삶은 돈, 명예, 건물 등의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세계관은 지식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더라도 우상을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만들어지는 세계관은 성경적 세계관이 아니라 세속적 세계관이다.

둘째, 기독교대학은 ‘명목적 신자’가 아닌 기독교세계관과 기독교지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교회와 함께 기독교대학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기독교대학이 해야 할 시작이지 최종 목표가 아니다. 세계관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기독교적 가치와 행동양식만 변화시켜 겉모습만 기독교식으로 변화된 ‘명목적 신자’는 아무 능력을 행할 수 없다(안점식, 2015; 25-26). 기독교대학은 겉사람 뿐 아니라 속사람이 변화된 기독교세계관과 기독교지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야 한다.

셋째, 기독교대학이 먼저 희생하는 본을 보여야 한다.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다. 그 희생은 약자를 위한 희생이지 약자에게 강요된 희생이 아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목숨을 희생하심으로 죄인이며 약자인 인간이 살게 되었다. 성경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십 리를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라라고 말한다(마태복음 5: 39-44).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태복음 5: 48)”는 명령을 주신다. 그러나 기독교대학은 어떠한가? 과연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세상의 방식대로 경쟁하고 적당히 살고 있는가? 기독교대학의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기독교세계관과 기독교지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삶을 통해 형성되는 기독교세계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독교대학의 목적은 기독교세계관과 기독교지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기독교대학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독교세계관과 기독교인성을 갖춘 인재양성이라는 목적 외에 기독교대학의 행정 속에 스며든 우상과 세속적 세계관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가야한다. 지금의 대학은 학생정원을 늘리는 것이 우상이 되고 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학생정원을 늘리는 것이 기독교대학의 목적이 아니다. 기독교세계관과 기독교지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므로 각 기독교대학들은 각 대학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러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최적의 학생 수를 결정해야 한다. 세속적 사고방식으로 많은 수의 학생들 받아들이는 것이 옳고 좋은 것이라는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 학교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교육부의 압력에 밀려 눈치 보며 학생정원 수를 마지못해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그 이유는 영향력이 없는 ‘명목적 신자’가 아닌 기독교세계관과 기독교지성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의 군사를 길러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 기독교는 명목상의 신자가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늘어갈 때 희망이 있다. 기독교대학들이 세상의 이익을 계산할 것인지 하나님나라의 이익을 계산할 것인지 어느 길로 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길인지 고민해야 한다.

2) 기독교대학의 공동 대응

① 기독교 대학, 교회, 각종 기독교 단체의 연합

“해방이후, 한국교회는 거듭되는 분열을 하면서도 교회는 부흥하여 왔다. 그러나 1990년 이후 이러한 부흥은 정점에 달하고 이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한춘기, 2013: 261).” 이제 한국의 기독교대학과 교회는 계속 하향곡선을 그리며 쇠퇴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 번 도약의 길을 갈 것인지를 갈림길에 있다. 주변의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앞으로 기독교대학을 유지하고 발전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이고, 교회의 성장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은 기독교대학과 한국교회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이러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4차 산업혁명의 만들어낼 인공지능, 인공로봇, 생명공학은 인류에게 인간이란 무엇인지를 묻게 할 것이고 그것에 명쾌한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성경이기 때문이다. 둘째, 과학의 발전은 진실을 더욱 밝혀 줄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셨다고 말한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로마서1:20)” 따라서 과학의 발전은 성경이 진실임을 밝혀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기독교신앙을 가진 학자들 스스로 자신이 소명으로 삼고 있는 학문에 왜곡된 점이 있음을 깨닫고, 왜곡된 학문의 패러다임을 바꾸도록 노력할 때 이루어질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독교학자들이 전공학문에서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회복의 길로 나아갈 때 4차 산업혁명은 기독교에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독교학자 개인뿐 아니라 기독교대학, 교회, 각종 기독교단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과거의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란 독일에서 행정부를 중심으로 기업, 노동조합, 대학이 제휴하여야 미래 사회를 선도할 수 있다고 하여 처음으로 제안한 용어이다(성태제, 2017 :5).” 즉, 정부가 주도를 하되 기업, 노동조합, 대학들이 서로 연합하여 주도로 미래 사회를 선도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이다. 미래사회는 뛰어난 개인이나 소수의 집단이 이끌어 갈 수 없는 사회가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넘어 벌써 5차 산업혁명이 이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기독교대학들이 앞장을 서서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한다. 기독교대학, 교회, 각종 기독교단체들이 미래사회를 대처하기 위한 범기독교단체를 만들고 하나 되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더 이상 개교회 중심, 소속 대학이나 단체 중심에서 벗어나야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② 4차 산업혁명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내 기독교대학연합체 부활

2002년 고신대학교, 백석대학교, 한동대학교와 기독교학문연구회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기독교대학학술대회(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hristian Higher Education and Scholarship, ICHES)가 개최되었다. 이 학술대회는 미국 기독교대학인 Calvin College(Grand Rapids, MI)의 교수개발프로그램인 카이퍼 세미나(Kuiper Seminar)를 국내에 도입하여 한국 기독교대학 교수와 기독교학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어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여왔으나 2015년 7회 학술대회를 개최한 후, 중지된 상태이다.

국내 기독교대학과 기독교학문연구회가 힘을 모아 다시 한 번 기독교세계관과 기독교지성의 확산에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모임이 활성화 되지 못한 원인을 찾아야 한다. 그 원인에 대하여 저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첫째, 초창기 해외 기독교대학 석학들의 초청은 큰 반향을 일으켰으나 그 후, 주요 외국인 초청 강연자들이 한국의 실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되풀이함으로써 인해 국내 학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 둘째, 기독교대학들이 하나님나라를 향한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진정한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다. 셋째, 2년에 한 번씩 하는 학술대회로는 기독교학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 내는데 부족했다. 넷째, 고신대학교, 백석대학교, 한동대학교가 중심이 되어 전체 기독교대학의 학술대회로 성장하지 못했다. 다섯째, 국내 기독교대학들이 입학자원 감소와 각종 대학평가로 생존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로 기독교대학들은 정체성을 유지하고 발전하는데 힘을 쓰기보다는, 우선 각종 평가지표를 높이는 데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한국의 기독교대학들이 함께 모여 이 사회를 이끌어갈 기독교지성과 기독교학문을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기독교대학의 본연의 임무를 상실하는 무가치한 대학이 될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국제기독교대학학술대회의 사례를 교훈삼아 국내기독교대학학술대회의 구성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고신대학교, 백석대학교, 한동대학교가 중심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많은 국내 기독교대학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산하 기독교학문연구회가 매년 2회의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한국학술재단 등재학술지인 <신앙과 학문>을 발간하고 있다. 이러한 학회와도 협력하여 기독교학문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독교대학들과 교회들이 공동의 연구기금을 마련하여 기독교학문연구를 활성화하고 기독교학자를 양성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기독교지성을 개

발하고 기독교학문을 발전시키는 것은 기독교대학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 직장과 일터에서 일할 기독교 인재를 양성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3) 기독교형 미네르바 대학 신설

(1) 미네르바 대학

2011년에 설립된 미네르바 대학(Minerva Schools)은 7개국 7개 도시(Seoul, Taipei, Hyderabad, Berlin, London, Buenos Aires, San Francisco)에 위치한 기숙사에서 온라인 교육을 한다. 미네르바 대학의 홈페이지에는 “93%의 고용주는 구직자의 어떠한 학위를 가지고 있는가보다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명확하게 대화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입증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2013년 미주대학교연합체(The Association of American Colleges and Universities)의 연구를 인용하고 있다.⁴⁾ 미네르바 대학의 성공은 대학의 간판과 명성보다는 실제 어떠한 능력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느냐라는 핵심에 근접한 교육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미네르바 대학은 사회과학대학(Social Sciences), 수리과학대학(Computational Sciences), 자연과학대학(Natural Sciences), 경영대학(Business), 예술 및 인문대학(Arts & Humanities)의 다섯 개 대학이 있으며 각 대학은 6개의 집중과정을 두고 있다.⁵⁾ 4년제 대학프로그램과 함께 2년의 대학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비판적 사고능력, 창의적 사고력, 효과적인 대화능력과 상호작용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2) 기독교형 미네르바 대학의 필요성

“미네르바는 정보기술이 어떻게 ‘어디서나 닿을 수 있는 대학’을 탄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무언가를 보여주었다(Carey, 2015: 181).” 미네르바 대학의 성공은 다양한 형태의 미네르바 대학의 확산을 불러올 것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건물이나 교수진의 확보를 위해 투자할 필요가 없이 기존의 대학들이 네트워크를 이루고 공동의 목표를 위한 협력을 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해외 우수 대학들은 글로벌 캠퍼스를 통해 전 세계로 영향력을 넓히고 있으며,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중국 등 잠재적 교육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지역의 선점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조현국, 2017: 70). 미래의 대학은 교육 플랫폼을 선점한 글로벌 대학들로 학생들이 몰려 나머지 대학들은 쇠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독교대학만이 할 수 있는 기독교 융합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기독교세계관과 기독교학문이 녹아 있는 강좌로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통해 기독교지성의 확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3) 기독교형 미네르바 대학의 제안

4차 산업혁명시기에 기독교대학에 주어진 변화는 복음을 확산하고 기독교지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과거에는 교회나 기독교대학들이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해외에 기독교대학을 세우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 교수와 직원이 필요했다.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과 세미나실, 최소한의 교직원만 있으면 가능한 시절이 된 것이다. 기존의 기독교대학들이 복음전파와 기독교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같이 협력한다면, 무한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기독교형 미네르바 대학 협의체의 구성과 발전방안을 제안한다(그림 2). 기독교형 미네르바 대학은 선교를 위한 대학(가칭, God First University)이다. 1단계 준비기에는 백석대학교와 MOU를 맺고 있는 대학들을 중심으로 기독교형 미네르바 대학 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대학의 사이버 강의 자료를

4) <https://www.minerva.kgi.edu/academics/philosophy-pedagogy/>

5) <https://www.minerva.kgi.edu/academics/majors-courses/>



(그림 3)기독교형 미네르바 대학 구성 및 발전 방안

통합하여 디지털 플랫폼(God First Digital Platform)을 만든다. 2단계 보완기에는 PAUA(Pan Asia-Africa Universities Association)과 연계하여 수업을 운영하고, 교육 낙후 지역으로 기독교형 미네르바 대학 캠퍼스를 확대한다. 3단계 정착기에는 회원대학과 회원대학의 기숙사를 활용하여 On-line과 Off-line 수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한국사회에서는 특히 어느 대학을 졸업하였는지가 기업체의 인재선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왔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도 서서히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기독교형 미네르바 대학의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미래사회에 기독교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토대를 만든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위에 언급한 모든 제안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로 귀결된다. 바로 각 분야의 기독교지성을 개발하고, 이를 확산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다양한 전공분야의 기독교학자들이 변화와 흐름을 읽고 전공 학문영역에서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독교지성을 갖추어야 한다.

국내의 모든 기독교대학들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기독교대학의 본질을 회복하고, 함께 모여 지혜를 모으고 협력함으로써 미래사회의 방향을 제시하고 다시 부흥의 길을 걸어갈길 기대해 본다.

IV. 결론 및 요약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과학기술 분야뿐 아니라 사회전반적인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도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인재양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기독교대학이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여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독교대학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예상되는 교육환경의 변화와 국내대학의 환경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교육 플랫폼이 확산될 것이다. Coursera, edX, FutureLearn, Mooc와 같은 디지털 교육 플랫폼의 확산에 대학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도태될 가능성이 많다.

둘째,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인성교육의 답은 기독교인성 교육에 있을 것이며, 칼뱅주의자인 호레스 부쉬넬의 기독교인성교육 사상 중 자율적 인성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요구되는 인성과 대부분 일치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평생교육의 시대가 열리고 이는 대학들에게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교육환경의 변화와 함께 국내 대학의 환경으로 입학자원의 감소와 교육부 주도의 대학구조의 문제점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기독교대학의 대응에 대하여는 기독교대학이 본질을 회복하고 기독교대학 본연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기독교대학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됨을 언급하면서 세 가지의 제안을 하였다.

첫째, 기독교대학의 설립정신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속적 세계관에 물든 기독교대학의 통렬한 자기 인식과 반성, 진정한 회개와 실천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 기독교 내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기독교대학이 복음전도에만 그치지 않고, 기독교세계관과 기독교지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또한, 기독교대학이 일반대학과 똑같이 경제적 이익만을 쫓아 학교를 운영하지 말고, 학교의 재정과 경영 상황을 고려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적절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정원을 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기독교대학의 공동대응으로 기독교대학, 교회, 각종 기독교단체를 아우르는 범기독교단체를 만들어 4차 산업혁명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협력할 방안을 논의하고, 국내 기독교대학연합체를 부활하여 기독교학문 교류의 장을 회복할 것을 주장하였다.

셋째, 기독교형 미네르바 대학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이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기독교대학들이 인터넷 교육 플랫폼을 기반으로 미래의 교육환경 변화를 준비하고, 국내 대학뿐 아니라 미국 기독교대학과 PAUA(Pan Asia Africa Universities Association) 소속 대학들과 연계하여 복음전파와 기독교인재 양성의 과업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이 다가오는 시점에 기독교대학들이 설립정신을 회복하여 세속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독교대학이 세속적 방식으로 살려고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독교대학에 복을 주시고, 기독교대학에서 양성된 기독교세계관과 기독교지성을 갖춘 인재들이 예수의 사랑을 품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지원 (2015). “물리치료학과 전공수업에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위한 질적 사례연구.” 『신앙과 학문』 . 20(2). 39-68.
- 김웅기 (2018). “제4차 산업혁명이 기독교교육계에 미칠 영향과 대응전략”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 61-75.
- 이은정 (2017). “변곡점에 선 한국의 대학교육과 4차 산업혁명: 지식담론에서 교육담론으로의 전환 필요성.” 『인문과학연구논총』 . 38(2). 141-181.
- 이원일 (2017). “칼뱅주의에서 기독교 인성교육: 호레스 부쉬넬을 중심으로.” 『장신논단』 . 49(2). 349-374.
- 양금희 (2017). “루터의 만인제사장 개념을 통해서 본 평신도교육 개혁.” 『장신논단』 . 49(1). 65-91.
- 이기중 (2015). “대학 구조 개혁 평가의 배경, 쟁점 및 대안.” 『교육평가연구』 . 28(3). 933-954.
- 송윤희 (2016). “집단지성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교과교육학연구』 . 20(5). 395-406.

- 지현아 (2017).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학 인성교육 방향 연구.” 『교양교육연구』 . 11(6). 39-61.
- 반상진 등 (2013).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정원 조정 및 대학구조개혁 대책 연구.” 『교육정치학 연구』 . 20(4). 189-211.
- 한동승 (2016). “4차 산업혁명시대, 대학 교육과 콘텐츠.” 『인문콘텐츠』 . 42. 9-24.
- 성태제 (2017).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간상과 교육의 방향과 제언” 『한국교육학회』 . 55(2). 1-21.
- 안중배 (2017). “4차 산업혁명에서의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미디어와 교육』 . 7(1). 21-34.
- 오인탁 (2016). “4차 산업혁명과 교육의 과제.” 『기독교교육총론』 . 52). 417-445.
- 윤승태 (2018).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회의 역할과 방향” 『신학과 실천』 . 6(2). 152-185.
- 조한국 (2017).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대학교육의 변화와 교양교육의 과제.” 『교양교육연구』 . 11(2). 53-89.
- 조상식 (2016).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 교육의 과제” 『미디어와 교육』 . 6(2). 152-185.
- 조상식 (2017). ““제4차 산업혁명’과 교육: 적응이나 종속이냐.” 『교육비평』 . 39. 348-368.
- 한춘기 (2013). “한국교회의 나아갈 길: 복음주의 기독교교육의 관점에서” 『성경과 신학』 . 65. 239-266.
- 우중학 (2017). “종교개혁의 유산과 과학 분야의 과제” 『월드뷰』 . 30(1). 30-39.
- 심재승 (2004). “한국 기독교 대학을 위한 제언.” 『백석저널』 . 6호 부록. 9-14.
- 손봉호 (2017). 『주변으로 밀려난 기독교』 . 서울: CUP.
- 마동훈 (2017). “미래대학의 구상과 추진.” 『선진화정책시리즈』 .2017(2). 202-209.
- 이주호 (2017).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교육 대전환.” 『철학과 현실』 .112. 130-154.
- 김영식 (2018). 『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의 미래』 . 서울: 학지사.
- 김지원 (2015). “학문간 교류를 통해 기독교학문 활성화를 이루려는 학교법인 백석대학교의 프로그램 현황과 제언” 『기독교학문학회 추계학술대회』 . 137-138 확인.
- 황의철 (2017). “4차산업혁명 시대의 대학교육 방향” 『한국콘텐츠학회 2017 춘계종합학술대회』 . 137-138.
- 최승복 (2017). “제4차 산업혁명과 한국 교육” 『한국가정과교육학회 학술대회』 . 12-31.
- Niebuhr, H. R. (1951). *Christ and Culture*. 홍병룡 역 (2007). 『그리스도와 문화』 .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 Carey, K. (2015). *The End of College*. 공지민 역 (2016). 『대학의 미래: 어디서나 닿을 수 있는 열린 교육의 탄생』 . 서울: 지식의 날개.
- Schwab, K. (2016).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김진희, 손용수, 최시영 역 (2016). 『4차 산업혁명의 충격: 과학기술 혁명이 몰고 올 기회와 위협』 . 서울: 흐름출판.

(요약) 4차 산업혁명과 기독교대학

김지원(백석대학교 보건학부 교수)

I. 서론

4차 산업혁명은 공학이나 기술 분야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따른 교육환경의 변화와 생존하기 위한 대학들의 변화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기독교대학이 어떻게 이러한 변화에 대처해야하는지 모색하고자 한다.

II. 4차 산업혁명과 대학

1.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교육환경의 변화

- (1) 디지털 교육 플랫폼의 확산
- (2) 인성교육의 강화
- (3) 평생교육

2. 국내 대학의 환경

- 1) 입학 자원의 감소
- 2) 교육부 주도의 대학구조개혁

4차 산업혁명시대의 특징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주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성태제, 2017: 17). 그러나 각종 정부주도로 진행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과 대학구조개혁평가 등은 학문의 다양성과 이를 근거로 한 창의성 개발과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국내 대학의 환경 속에서 대학은 미래를 위한 준비보다는 바로 눈앞의 생존을 위해 교육부의 평가점수를 높이는 데 귀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의 문제를 푸는 방법은 대학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미래교육을 위해 대학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획기적인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III.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독교대학의 대응

1. 4차 산업혁명 기독교대학의 위기인가 기회인가
2. 기독교대학 미래를 위한 제언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담론에서 기독교학자들이 그 중심부에 서야 한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학자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유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국내 기독교대학들이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1) 기독교대학의 설립 정신 회복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한국의 교회와 기독교대학이 기독교세계관과 기독교지성을 갖춘 성도를 만들어 가지 못한다면 한국의 교회와 기독교대학은 더욱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 동안 한국 교회와 기독교대학은 많은 반성을 하였다. 하지만 잘못에 대한 깊은 성찰과 진정한 회개는 없었다. 잘못을 반성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진정한 회개인 돌이키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한국의 교회와 기독교대학이 잘못을 돌이켜 올바르게 바꾸려는 행동이 있을 때 한국의 기독교는 다시 한 번 부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기독교대학이 돌이켜야 할 사항들을 논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 기독교의 이상을 제거해야 한다.

둘째, 기독교대학은 '명목적 신자'가 아닌 기독교세계관과 기독교지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셋째, 기독교대학이 먼저 희생하는 본을 보여야 한다. 기독교대학들이 세상의 이익을 계산할 것인지 하나님나라의 이익을 계산할 것인지 어느 길로 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길인지 고민해야 한다.

2) 기독교대학의 공동 대응

- ① 기독교 대학, 교회, 각종 기독교 단체의 연합
- ② 4차 산업혁명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내 기독교대학연합체 부활

3) 기독교형 미네르바 대학 신설

- (1) 미네르바 대학
- (2) 기독교형 미네르바 대학의 필요성
- (3) 기독교형 미네르바 대학의 제안

다음과 같이 기독교형 미네르바 대학 협의체의 구성과 발전방안을 제안한다. 기독교형 미네르바 대학은 선교를 위한 대학(가칭, God First University)이다. 1단계 준비기에는 백석대학교와 MOU를 맺고 있는 대학들을 중심으로 기독교형 미네르바 대학 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대학의 사이버 강의 자료를 통합하여 디지털 플랫폼(God First Digital Platform)을 만든다. 2단계 보완기에는 PAUA(Pan Asia-Africa Universities Association)와 연계하여 수업을 운영하고, 교육 낙후 지역으로 기독교형 미네르바 대학 캠퍼스를 확대한다. 3단계 정착기에는 회원대학과 회원대학의 기숙사를 활용하여 On-line과 Off-line 수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IV. 결론 및 요약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이 다가오는 시점에 기독교대학들이 설립정신을 회복하여 세속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독교대학이 세속적 방식으로 살려고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독교대학에 복을 주시고, 기독교대학에서 양성된 기독교세계관과 기독교지성을 갖춘 인재들이 예수의 사랑을 품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 갈 수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기독교대학에 대한 논평

John Park(Azusa Pacific University 교수)

김지원 교수의 “4차 산업혁명과 기독교대학”를 논하면서 먼저 논찬하는 관점을 제시한다. 여러 해 동안 고등교육 안에서 사회학, 인문학, 그리고 자연과학의 연구를 통해 얻은 가치판단기준의 틀 혹은 관점들 중, 두 가지의 관점에서 이 논문을 논한다. 첫째는 이성과 경험,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특수성과 일반성의 상관관계이고, 두 번째는 지정·의의 역동성과 균형성의 관점이다.

먼저 본 논문은 위의 두 관점들에서 볼 때 어떤 비판이나 평가도 쉽게 내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내용을 보태거나 수정하기 쉽지 않은 훌륭한 논문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기독교대학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며, 더 나아가 현 기독교대학이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방향들까지 잘 제시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란 기독교안에서는 논하기에 많이 부담스럽고, 어쩌면 “두려워하여 숨고” 싶은 용어이기도 하다. 이 산업혁명으로 인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는 실존적인 인간의 모습이 기독교인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 나아가 1차 산업혁명부터 앞으로 계속 있을 산업혁명들은 인간의 존재성과 인격성을 현격히 무시한 채, 비인격성과 산업의 생산성에 큰 초점을 맞추며 인간의 비인격화를 급속히 부추기고 있다.¹⁾ 사실 산업혁명들이 추구하는 기술과 과학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나 그 기술과 과학이 인간에 의해 오용될 때 오는 결과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한 도전이고 인간 존엄성의 위협이다. 따라서 기독교대학의 모든 학문분야는 그 학문 안에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있어야 한다.

김지원 교수는 기독교대학은 대학의 설립정신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한국교회와 기독교대학은 “성경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지 실제 삶의 현장에 적용하는 능력이 부족하다”²⁾는 것이다. 정확히 맞는 말인가? 아는 것이 믿는 것은 아니다. 한국교회와 기독교대학의 구성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마음으로 느끼고, 머리로 알고, 몸으로 실천해야 한다.³⁾

1) 이러한 비인격적인 접근 방법은 미국 안에서만 보더라도 Utilitarianism, Pragmatism 등으로 20세기 초반에 세상 전반과 기독교정신에 크게 도전이 되었고, 이에 대해 기독교는 복음주의 정신으로 20세기 중반과 후반을 잘 이겨 나왔으며 지금도 이겨 잘 나가고 있다.

2) 본문 8페이지

3) 이 4차 산업혁명을 피할 수 없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즐기라. 이 즐거움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다. 즐기기 위해 먼저 4차 산업혁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하고(Feeling, Heart), 또 그 사실을 알려고 노력해야 하며 (Knowing, Head), 우리의 삶 속에서 연결되어야 (Doing, Hand)만 한다. 그래야 우리가 속한 현 상황이 있는 그대로 받아드려 이해가 되고, 분석을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산업혁명으로 부터 오는 도전들에 대한 해결책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김지원 교수는 기독교대학은 “학문을 통해 하나님나라를 이루어 가는 곳”⁴⁾이라 말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독교대학의 대응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 기독교대학의 위기인가 기회인가”⁵⁾를 질문하고 그 답을 명쾌히 제시하고 있다. 이 특별한 시대에 기독교대학은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부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배출해야 하고, 기독교세계관과 기독교지성을 가지고 자신의 학문분야 또는 융·복합분야를 바로 볼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⁶⁾들의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자는 근대 과학 발전에 끼친 기독교의 중요성을 역사적 배경으로 설명하면서 “기독교인들이 보다 큰 책임감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언급한 것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기독교인의 ‘이중 의무’와 상통하는 말이다. 아퀴나스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이중의 법,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말한다. 하나의 법은 협소한 의미의 세상에서 지켜야 하는 자연법 혹은 시민법이고, 또 다른 법은 광의의 의미인 기독교인들이 양심과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 하늘의 법 혹은 영원한 법이다. 따라서 기독교대학은 전공분야의 학문의 우수성을 통해 현 삶의 상황인 4차 산업혁명과 기독교인의 삶의 근거인 신앙을 잘 연결시켜야 한다. 즉 기독교대학의 학자는 기독교학문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기독교신앙의 연결고리가 되어야 한다.

김지원 교수는 기독교대학이 4차 산업혁명이 주는 도전에 대해 생존의 상황을 넘어 탁월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은 “기독교대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온전한 기독교 대학이 되려고 모든 구성원이 협력하는 것이다”⁷⁾라고 한다. 공동체를 벗어난 한 개인이 갖게 되는 많은 문제점들을 충분히 알고 있는 우리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더 나아가 연구자는 기독교대학들도 4차 산업혁명에 “공동대응”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기독교대학 연합체의 부활을 요구하고 있다. 김지원 교수가 강조하는 공동체가 지니고 있는 설립정신, 공동대응, 연합체구성 등, 이 모든 중요한 일들과 더불어 모든 기독교대학 구성원은 철저한 소명 의식을 가져야 한다. 특히 기독교학자로서의 정체성은 그 거룩하고 강한 소명 의식에서 나오며 이 또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직업(Vocation)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로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소명이 분명치 않는 학자는 학문을 하는 동안 늘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과 하고 있는 학문연구 분야와의 사이에서 생겨난 이해의 모순들로 인하여 끝없는 갈등 속에 있게 된다.

결론적으로 기독교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은 소명 의식을 가져야 한다. 특히 기독교대학의 구성원들은 기독교대학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응하면서 세상의 빛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고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나갈 것이다. 지금은 김지원 교수가 4차 산업혁명에 직면한 기독교대학들을 향해 제시하는 구체적인 대응책들을 각 대학의 실정에 맞게 논의하고 바로 실행해 옮겨야 할 때이다.

4) 본문 7페이지

5) 본문 6페이지

6) 본문 6페이지

7) 본문 7페이지